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

#### 여주인공에 김태희

톱스타 김태희가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에서 송승헌과 호흡을 맞춘다.

'마이 프린세스'의 제작사 커튼콜제작단은 김태희가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희는 어린 시절 공주를 꿈꾸다 어느 날 갑자기 실재로 공주가 되어버린 늦깎이 대학생을 맡아 유쾌하고 발랄한 연기를 선보인다.

앞서 한류스타 송승헌이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마이 프린세스'는 공주와 한 남자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한다.

## 데뷔 25년 맞는 이승철 “일흔살이 되어도 노래할 것 은퇴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일흔 살이 되도 후배와 듀엣하고 싶어요. 은퇴라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죠. 소원이라면 어느 한구석에 흥상 하나는 남기고 싶네요.”  
이승철(44)은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는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1985년 록그룹 부활의 보컬로 출발해 지금껏 22장의 음반을 내며 200여 곡을 발표한 그는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 웃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축하고자 최근 25주년 기념 음반을 발표했고, 내달 5일 4만8천석 규모의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5주년 기념 콘서트-오케스트라’를 개최한다.

22개월 된 딸의 재롱에 푹 빠져있는 그는 “그간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고, 더 잘한 게 많도록 노력하며 산다”고 말했다.  
25주년 음반에는 신예 작곡가 최용찬 씨가 쓴 타이틀곡 ‘너에게 물어간다’, 타이거JK가 랩 피쳐링한 ‘25번째 프로포즈 등 신곡 3곡을 비롯해 후배 가수들이 재해석해 부른 그의 히트곡들이 담겼다.  
소녀시대가 ‘소녀시대’, 김태우가 ‘희아’, 박진영이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비가 ‘긴하루’, 김범수가 ‘떠나지마’,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마지막 콘서트’, 황계밴드가 ‘방황’을 노래하고 연주했다.

열아홉 살에 데뷔한 이승철은 시간의 무게를 이겨야 느끼는 듯 보였다.  
“일찍 데뷔해 많은 경험을 얻었지만, 인간적인 성숙이 덜 됐을 때 스타의 자리에 올라 많은 실수를 겪은 건 잃은 점이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완벽한 인격체로 가수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 부활 같은 그룹이 있었다는 건 참 다행스러워요.”  
부활은 이승철 음악 생활의 출발선이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과 불화설에도 시달렸지만 그 시절은 이승철 음악의 모태가 됐다.  
그는 “부활은 내게 양분 있는 토양. 발 같은 그룹”이라며 “그곳에서 음악적 깊이를 일깨우고 솔로로 데뷔했다. 이 시절이 없었다면 일개 기획사의 평범한 가수가 돼 음악적 한계가 빨리 왔을 것이다. 당시 부활 해체 후 솔로로 나서 방송중지 등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홀로서기를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간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고 더 잘한 게 많도록 노력하며 산다”

“소녀시대는 제 새끼 같은 후배이고, 김태우는 저를 무척 따르는 친한 후배, 김범수는 노래 잘하는 1순위 후배, 타이거JK는 이 시대 최고의 래퍼죠. 박진영은 저와 같은 세대 활동한 가수이자 최고의 제작자로 진영이가 참여해줘 힘을 얻었어요. 아이비는 노래 잘하고 외모도 색다른 흔치 않은 가수로 데뷔 당시 제가 공연 연출을 한번 해주고 싶었죠.”  
그는 히트 작곡가에 의존하지 않고 ‘소리쳐’의 작곡가 홍진영을 발굴했듯이, 이번에도 최용찬 등 신예 작곡가의 노래를 신곡으로 수록했다.  
“제 웹하드와 이메일에 신인 작곡가들이 매일 10곡씩 보내와요. 무차별적으로 듣고 거기서 골라요. 지금 당장 음반을 내도 알려질 만한 노래가 50~70곡가량 있죠.”

대마초 사건과 방송중지, 이혼 등을 겪으며 ‘인간 이승철’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터. 그러나 그는 은퇴하고 싶었던 순간은 2007년 ‘소리쳐’가 가렛스 게이츠의 곡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을 때라고 말했다.  
“그 사건으로 제가 무대에 설 수 없을 만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며 모든 것들이 매도될 때 아내에게 ‘은퇴할까’라고도 얘기했죠. 표절 시비는 가수에게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작곡가는 억울해했지만 밥 빠르게 영국에 검증을 의뢰해 해외 작곡가와 공동 작곡으로 바꿨죠. 그 곡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는 “공연이 끝나면 관객이 빠져나갈 때까지 무대에 들어가 지 않는다”며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배웅할 때 내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7월 MBC에서 녹화 방송될 이번 공연은 80m 대형 무대에서 총 60인조 오케스트라와 록밴드가 협연한다. 그의 곡들은 오케스트라로 편곡돼 클래식과 록의 만남으로 재탄생된다.

이승철은 가수 인생에서 고마웠던 곡으로 ‘희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네버 엔딩 스토리’, ‘그런 사람 또 없다’를 꼽았다.는 자신의 곡들로 채운 뮤지컬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드라마 ‘커피하우스’의 박시연(왼쪽)과 강지환.

## ‘커피하우스’ 강지환·박시연 “드라마와 시트콤의 경계 신선함과 재미 선사할 것”

“그냥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였으면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드라마와 시트콤의 경계에 다리를 걸친 점이 참 신선했어요.”  
SBS의 새 월화드라마 ‘커피하우스’에서 까다로운 베스트셀러 작가 이진수 역을 맡은 강지환은 ‘패도 홍길동’ 이후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강지환은 SBS출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기존의 미니시리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회 즐길 수 있는 것이 드라마와 시트콤을 접목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커피하우스’는 커피에 관한 한 가장 까다로운 취향을 지닌 소설가 진수와 유일하게 그의 커피 취향을 맞춰주는 친구인 출판사 대표 서은영(박시연), 이들을 만나 성장하는 백수 강승연(함은정)의 이야기다.

강지환은 “소설가 하면 젊잖고 고지식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역으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소설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출을 맡은 표민수 PD는 “가칠하다”는 캐릭터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이미지로만 보였는데,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새로운 가칠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지환씨 본인의 캐릭터가 진수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진수와 마찬가지로 까다롭기로 둘째 가라면 서럽다 할 사업가 역을 맡은 박시연은 “정말 해보고 싶었던 로맨틱 코미디를 좋은 감독님과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시연은 “이렇게 내가 직접 나서 순수 소품 하나까지 챙기고 준비하기는 처음”이라며 “사랑하는 커피들이 널려 있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 놀러 온 것 같이 촬영장 가는 게 기뻐진다.”라고 말했다.

서은영은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한 출판사를 물려받아 뛰어난 기획력으로 출판사 규모를 키우고 북카페 사업까지 확대해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는 늘 사랑을 하고 싶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건강을 챙기고 싶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 비타민 A, C, E의 보급
- 피로회복, 임신·수유기 병용, 병후회복, 면역력 증진
- 눈의 건조감과 안염, 안질환
- 방사·화학물질 등에 의한 세포손상(기억·수근력)의 완화,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 알코올·담배·노후·스트레스·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 노화 방지
- 노년·임산부·수유기·수근력 증진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안정 성분

광고문의: 1036-0600